



미혼모로서 이해와 출산 등 자신의 처절한 사랑을 작품화한 유미리씨.

### 재일동포 소설가 유미리씨 작품 두권 출간

평생 직장이란 없이 지내고 있듯 가족도 붕괴되고 있다. 속명적으로 여겨지던 가족간의 관계가 이제 간단한 이유 하나로 말잡히지 못하고 있다. 별거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청소년기가 한이 돼 끈질기게 가족을 주제로 한 소설로 일본문단에 우뚝 선 재일동포 소설가 유미리(柳美里·32)씨의 작품집 2권이 사방 사는 경이 그리운 연남을 맞아 잇따라 번역 출간됐다.

그리고 "행복한 가족은 비수컷 하지만 불행한 가족은 천저만발"이라는 말과 같이 완만해 떨어져 불행한 가정들을 이리저리 둘러보게 하면서 결국 배려가 떨어 없는 가족간의 관계와 사랑을 되새리게 한다. 국내시상사에서 매년 '생명'(김유근 옮김·7천원)은 일본에서 지난 6월 출간돼 '아름답고 강동적인 스캔들'이라며 지금까지 50만부나 유행해 독자들을 울리고 있는 장편소설. 말기장으로

## 가족간 사랑과 생명에 대한 가슴 뭉클한 고백

민음사에서 펴낸 '가족 스캐너'(김난주 옮김·8천원)는 유씨가 2년간 '주간 아사히'에 연재한 가족에 대한 콩트같은 산문 66편을 모아놓은 것. 결혼·이혼·재혼·별거·불륜의 한가운데 있는 가족, 경제적인 문제, 노인문제 등으로 고민하는 가족, 일 중독자·예체가·구두쇠가 있는 가족, 의사소통 단절과 소외로 앓고 있는 가족 등 지금 붕괴되고 있는 가족상을 스케치하듯 그려 놓고 있다. 그러면서 유씨는 부모의 별거로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는 자신의 가족을 둘러보고는 "그렇게 한심한 편은 아니지 뭐"라며 자조하고 있다.

죽어가는 유부남의 아이를, 그 사랑을 향한 사랑과 생명 의지 하나로 출산하는 미혼모의 이야기를 다룬 유씨의 자전적 소설이다. "지금 내 손가락 사이에서 시간의 모래가 새어나가고 있다. 물과 하늘과 수목 등은 아름다운 자연에 둘러싸여 있는 듯이 아니고, 불꽃놀이나 여름 해변 관광 등을 즐기면서 로스앤젤레스 지내고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일상 생활 속의 1초 1초가 내 머릿속에서 반짝반짝 빛을 발하게 시작했다. 되돌려 놓을 수 없는, 거꾸로 뒤집어 놓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없는 모래시계. 모래가 조금밖에 남지 않았을 때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빨라



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책시상상일까요? 나는 그 한말 한말에 눈길을 주며, 한말 한말이 떨어지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정부가 시시각각 죽음을 향하는 것을 바라보는 작중 주인공, 즉 유씨의 심경을 드러낸 마지막 부분이다.

처녀와 유부남과의 내밀한 불륜을 마치 열기 썩듯 적나라하게 공개한 점, 또 말기상으로 죽어가는 사랑을 향한 헌신적 사랑과 그 사랑을 잇기 위한 출산 등 통속적 부분이 문제 될 수 있으나 이 작품은 사랑과 생명에 대한 처절한 내면 고백 소설로 읽힌다.

특히 모래시계 같이 한알 한알 빠져 가는 우리의 삶에서 영원 같은 것은 추구하지 않고 매 순간순간을 영원처럼 살아내려는 신세대로 세태론의 한 정점도 드러났다. 유씨는 이러한 가치관으로 '생명' 표지에 아들을 안고 있는 시진머리도 과감하게, 상감적으로 실고 있다. 이경철 기자 <bacchus@joonsang.co.kr>

### 책 꽃이

<인문·사회과학>  
<중국대문화사(홍정주 지음, 박희정 옮김, 비룡출판사, 1만3천원)→194년~현재에 이르는 중국 문학작품들의 특징을 개괄적으로 보여준다.  
<러시아 정치사상사(박용형 지음, 문예리, 1만8천원)→근·현대사는 물론 고대로 종래 러시아의 정치사상적 전통과 흐름을 쉽게 정리해놓았다.

<리더스코(맹명근 지음, 신상미디어, 9천원)→디지탈 커뮤니케이션의 기반을 예수의 리더십과 가르침(커뮤니케이션)에서 찾는 저자가 한국 현실에 맞는 리더십을 보여준다.

<담배이야기(김정희 지음, 지호, 1만3천원)→담배의 역사에서부터 최근의 유해성 논쟁에 이르기까지 흥미진진하게 풀어냈다. 담배의 해악에 대한 통계 종언 근거가 확보한 것이 많다는 주장.

<학문의 향기(유구자와 유기재 지음, 양문소 옮김, 알솔미디어, 8천원)→일반화해 1편의 초상화 주인공 공이거에 한 저자에게서 일본 근대사상의 뿌리를 찾을 수 있다.

<학교를 찾는 아이(이민희 지음, 사회(조현정 지음, 문하의, 1만3천원)→약속이 지켜지는 학교, 스승이 가능한 관계,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고 스스로 업그레이드해 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려는 저자의 교육철학 보고서.

<경제·경영>  
<중국의 시장과 기업(정구원·영구로 엮음, 나남출판, 1만2천원)→경제 대상으로서의 중국 기업을 분석하고 투자 전략을 모색한 동북아 포럼의 연구 결과물.

<재주없는 시인이 성공한다(나기타니 아키히로 지음, 이선과 옮김, 지혜, 7천원)→20대에 하지 않으면 안 될 '외가자' 시인으로서 '렐' 명의 무명처럼 처음엔 단단하지만 두 번째부터 쉽게 열린다'를 2번까지 성공포인트를 전한다.

<문학>  
<신인 뉘 날자 1·2(제럴드 매사치에 지음, 최경란·최혜란 옮김, 그린 5천원)→'사랑의 아들' 여수의 삶을 다룬 화제의 소설. 총 7권으로 출간될 예정이다.

<어린이>  
<괴상한 녀석(남찬숙 지음, 한신출판, 장차과비행사, 6천원)→어린이의 소년의 아이디어를 독백을 통해 집단 따돌림 문제와 우리 사회의 부모교육 면면을 다뤘다. 초등학교 고학년용.

<정문으로 들어온 선물(고미 지음, 그린, 이종호 옮김, 비룡소, 8천원)→행가를 탄 신사, 정문 3백여 구멍을 뚫어 빛깔의 그림과 연결시킨 아이디어 등이 재밌다. 만2세 이상.

<우리나라 전래놀이(홍익사 지음, 이현호 옮김·파란 새이리, 7천5백원)→교과서에 나오는 전래놀이와 동시들이 담긴 이 책이 유쾌하게 해학이 넘쳐나게 설명해 놓았다.

<임야, 문화혁명이 뒤엎어(박희상 지음, 한가람, 6천원)→조동현의 중국·몽골·미국 여행 일기, 사물을 보는 관점과 표현력이 어린이치고 뛰어나다.

<기타>  
<물구나무 과학(전용준 지음, 문학 퍼지서, 9천5백원)→'과학동아' 기자 출신의 저자가 기사로 연재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묶어 일반인들도 재미있게 과학을 접할 수 있다.

<권력과 여인(이정식 지음, 돌음, 1만원)→크리스틴 켈라에서부터 정인숙·린다까지 권력과 여인의 관련된 역사적 대사건들의 이면을 파헤쳤다.

## "출판사서 번역의 質 신필을 300종 넘게 의뢰받아"

### 국내 첫 번역회사 설립 양원근씨

국내 단행본 중 영·일어로 된 외서(外書) 번역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60% 선. 시장 면에서 국내 저작물 이상 가는 비중을 갖는 것이 번역사이다. 하지만 국내 출판계의 숙제인 번역의 질을 한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구조적 방안을 모색해 본 이의 땅지였다. "번역영국 일본"의 출판물 따지는 존재인 신뢰할 만한 번역원인 "비밀"같은 교육기관의 설립 같은 구조적 방안 말이다. 사장이 그러하다. "번역 산업"의 가능성에 주목해온 이도 말지않았다. 국내 유일의 단행본 번역회사 주목받고 있는 "엔데스 코리아(www.entdeskorea.com)"의 대표 양원근(36·시인)에게 물었다니 급세 답이 나왔다.

"번역자에게 지급되는 액수를 기준으로 봐도 한해 원고료의 총액은 약 3천억원 수준이다. 2백자 원고지 장당 1천·2천원 할 정도의 고료의 수준을 감안한다면 먼 시할 수 없는 수치다. 그것이 단행



본 출판번역에 국한된 것이고, 이른 바 산업번역 시장이 훨씬 크다." 그 때부터 각종 수 입상품들의 사정일면서 번역을 다루는 산업번역 분야는 연 2조원의 규모, 번역의 또 다른 영역인 미디어 번역(영화·비디오 자막)까지 감안한다면 엄청난 것이다. 양원근은 3개 영역 중 가장 정교함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출판번역 시장에 지난 1997년 기업 형태로 뛰어들어 최초의 인물. "지난해 출판사로부터 의뢰받은 단행본 총수(總數)가 2백50종이다. 올해는 3백여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출판사, 번역가 사이에 알뜰함으로 연결되면 번역의 의미가 시스템화 돼 가는 징표다. 물론 엔데스코리아의 번역의 질에 대한 신뢰가 전제가 됐어야 가능한 수준 업적이다." 엔데스 코리아는 신화에 인터넷 번역 교육 기관인 "트랜스"를 운영하고 있다. 조우석 기자

### 올마 전 베이징(北京)의 매서운 겨울 바람을 뚫고 중국인 작가 한 명이 베이징의 기자 사무실을 찾아왔다.

손에는 원고와 관공저 들려 있었다. 주제는 반(反)부패, 돈과 권력, 색(色)이 어우러지는 중국 사회의 부패상을 심감나게 그렸지만 출판사를 찾지 못해 고민이라니 허소연했다. "노답만이 외국까지 찾아 나섰던 노작가의 발걸음에서 보듯 저절로 중국 출판시장은 반부패를 테마로 한 서적들의 경연장이었다.

양원빈(楊文彬)의 '성(情)의 담원'의 서기, 무이린(無宜林)의 '생사문(生死門)', 무엔밍(無天明)의 '대설무운(大雪無雲)', 비쓰라이(畢斯萊)의 '재부(財富)와 인생', 천노(天諾)의 작가 천량(陳亮)이 쓴 1백80만자의 '도시사정(都市情)' 등 수많은 반부패 작품들이 쏟아져 나왔다. 대표작인 작품이 신시(申詩)성의 중년 작가 정평(張平·45)이 쓴 소설 '열매(扶貧·선박)'이다.

중국 어느 한 도시의 시정인 리가

### 월드 리포트

오정(李高成)이 도시에 있는 중앙(中陽)방직그룹의 부패 문제를 조사하면서 서 겪는 고뇌를 다룬 것이다. 주인공은 이 거대한 국유기업의 부패 뒤에 자신의 오랜 부하들은 물론 절친같이

### 올 중국 서점가 반부패 작품 바람

말렸던 아내까지 가담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들과 처절한 사상·도덕·영혼의 충돌을 벌인다.

작가는 주인공이 결국 추호의 용서도 없이 부패를 척결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이 작품은 지난 8월 초 '생사의 선택(生死的抉擇)'이라는 제목으로 영문화되면서 더욱 유명해졌다.

중국의 장쩌민(江澤民)주석이 정치국 상임위원들을 이끌고 영화를 관망한 뒤 이틀날 정치국 회의에서 "철저하게 부패를 척결하자" 않으면 당도 국가도 모두 망한다"며 강력한 반부패 의지를 밝혔을 정도다.

장정은 이 작품으로 최근 신시성 작가로서 처음으로 중국 최고의 문학상 중 하나인 마오둔(茅盾)문학상을 수상했으며 '인민 작가'라는 칭호까지 받았다.

5년여 전만 해도 반부패 작품을 쓰는 것은 사실 위험천만할 일이었다. 그러나 올해 장시(江世)성의 부성장 후장정(胡長政) 등이 잇따라 부패 혐의와 사형에 처해지는 등 전례 없는 부패척결 바람을 타고 소설 역시 개화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불은 당나라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부패의 원인이 워낙 단단한 데다 중국 정부도 침사리 둘러싼 기세가 아니기 때문이다.

베이징=양원근 특파원 <scopy@joonsang.co.kr>

Advertisement for '보석같은 이야기 한 편이 이 겨울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A precious story warms this winter). It features a cat illustration and promotes a book by '이승하' (Lee Seung-ha) about a cat's journey. The ad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Jakka Publishing and a list of featured authors like '최신간' and '마리엘 데리 지음 / 최경철 옮김 / 1권 5,000원'.